

2024. 3. 2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02-2133-8660
통일기반정책팀장	고성남	02-2133-8661
정착협력팀장	서정실	02-2133-8668
안전돌봄팀장	이근하	02-2133-8676
관련 누리집 (메뉴)	<a href="http://www.seoul.go.kr/news/상단">http://www.seoul.go.kr/news/상단</a> <서울소식> → 좌측 <보도자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9쪽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 돕는다... 생계·일자리·의료·교육 빈틈없이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발표, 서울 거주 총 6,417명 대상
- 위기징후가구 선제적 발굴로 긴급 보호, 심리상담·치료 등 탈북 트라우마 극복 지원
- 소상공인 기술 전수 창업 지원, 일자리 연계형 취업 지원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제공
- 치과 등 병원비 지원 확대·즉각적인 치료 연계, 자녀 대상 국영수 방문학습 확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 편견 및 인식개선에도 집중, 정착 위한 체계적 지원 지속

-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서울시가 생계·일자리부터 의료·교육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지원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 현재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전국 31,322명 중 20.5%, '24.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전입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거주자 중 여성이 4,422명, 남성이 2,014명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6.1%로 가장 많다.

▶ 연도별 국내 전입자 수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규	서울	281	154	49	25	62
전입	전국	1,047	229	63	67	196

□ 최근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담당부서 명칭을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했다.

□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북한이탈주민 발굴과 안정적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위기 징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북한이

탈주민 본인의 사회참여 등으로 소속감을 높여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위기징후가구 선제적 발굴해 생계 긴급 지원, 심리상담으로 탈북트라우마 극복 지원>

-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 이를 위해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4개소)가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25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발빠르게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 예컨대,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 자살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300개 캠프, 약 3천명)와 우리동네 돌봄단(1,200여 명) 등 지역활동가들도 정기적인 방문과 반찬 배달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으로 다양한 트라우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가 많은 동북권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타권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 아울러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 〈지역 소상공인 전수식 창업 지원 중장년층 대상 영농교육 등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제공〉

□ 다음은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하고 싶은 직장 ※출처 :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결과, 남북하나재단  
▶ 자영업(창업 등) 38.4%, 중소기업(13.6%), 국가기관·공기업(27.9%), 대기업(8.0%)

○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교육은 받았지만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일반 국민(평균 74개월)에 비해 근속기간이 낮다.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평균 34.4개월)

- 우선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미용·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치과 등 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즉각적인 치료 연계, 자녀 대상 국영수 방문학습 확대>

- 건강과 교육 분야도 빼놓지 않았다. 총 6곳(공공4, 민간2)이던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을 8곳(공공4, 민간4)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치료를 돕는다.
- 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현행	소득제한無		개선	구분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치과	400만원		치과	450만원(100%)	360만원(80%)
일반질환	250만원	일반질환	250만원(100%)	200만원(80%)		

-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2명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상담해 효과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 이외에도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 사회성·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합동 캠프와 체험 등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촘촘한 일상 지원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지원(세대당 25만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챗봇 ‘서울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이용료 감면 등 복지수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조례 등도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 앞선 대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속감과 자긍심도 높인다.

□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붙임 1.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개요)  
2. 북한이탈주민 주요 현황

□ **비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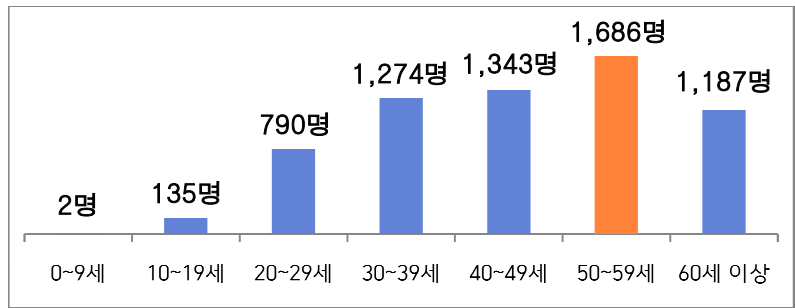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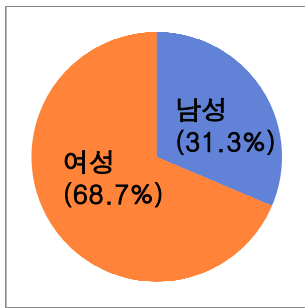
<b>비전</b>	<b>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따뜻한 「서울 동행」</b>	
<b>목표</b>	위기 북한이탈주민 안정기반 마련 +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	
5대 분야  16개 사업	<b>위기가구 발굴 ·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 실시</li> <li>②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위기징후 가구 발굴지원</li> <li>③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시범 사업 운영</li> <li>④ 정부·서울형 긴급복지 사각지대 보완 긴급 생계비 지원</li> </ul>
	<b>일자리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창업교육 시범사업 운영</li> <li>② 영농 실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도모</li> <li>③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현장 직무경험 제공</li> </ul>
	<b>의료 · 교육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선별적 의료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진료도우미 운영</li> <li>②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맞춤형 돌봄프로그램 운영</li> <li>③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li> <li>④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에 북한이탈주민 우선 선정</li> </ul>
	<b>츠츠한 일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동행 맞이 서비스</li> <li>②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li> <li>③ 북한이탈주민을 우선배려대상에 포함 복지혜택 확대</li> </ul>
	<b>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인식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li> <li>② 북한이탈주민 연합봉사단 ‘동행나눔봉사단’ 운영</li> </ul>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 6,417명('24.2월)**

성 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6,417	2	135	790	1,274	1,343	1,686	1,187
여 성	4,406	1	62	461	835	1,002	1,250	795
남 성	2,011	1	73	329	439	341	436	392

○ 성별로 **여성** (4,406명, 68.7%), 연령별로 **50대** (1,686명, 26.3%)가 많음



○ **노원(986명) > 양천(978명) > 강서(860명) 등 3개구** (2,824명, 44%)에 주로 거주  
 - 100명 미만 : 성동(96명), 서초(92명), 중구(72명), 용산(61명), 광진(59명), 종로(32명)

○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거주 및 전입 추이** ※ 출처 : 하나넷, 단위 : 명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매년 신규 전입자 감소하다 작년 다시 증가('24.2, 10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거주	서울 (비율)	7,094 (22.9%)	6,970 (22.1%)	6,776 (21.5%)	6,595 (21%)	6,432 (20.5%)
	전국	31,005	31,521	31,503	31,365	31,314
신규 전입	서울	281	154	49	25	62
	전국	1,047	229	63	67	196